

‘경청’은 자신의 시간을 상대에게 선물하는 것

작가 에세이



백정환
시인·수필가

사람의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둘이다. 입은 말은 적게 하고 귀는 말을 많이 들으라는 의미로 받아 들어본다. 우리는 살면서 말하고 들으며 의사를 소통한다. 말이란 인간 상호간 의사 전달 수단이며 생각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표현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화는 상대방의 내면에 깔린 생각을 교환하는 소통이다. 한편으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에게 접근해 의사를 전달하고자 할 때 명확한 소통으로 이어져야 한다.

현대는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시대다. 통신 수단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변화 되어왔다. 다양한 정보의 소통 창구인 휴대폰은 문자·그림·사진·음악 등을 합성한 영상에서 청각적 자극을 수신해 그것을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傾聽)’ 일 것이다. 경청은 사람의 유형에 따라 소통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상호 대화에서 경청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상대방을 무시하는 유형, 둘째, 말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거들먹거리는 태도. 셋째,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만 선택하여 들으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듣는 유형. 넷째, 상대방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자기만의 입장에서 듣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과만 소통하려는 유형. 다섯째, 경청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취하면서 상대방의 언어,

의도, 감정을 모두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유형 등이다.

이 가운데 대화 상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형은 다섯 번째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자세가 우선일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대화에서는 상대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도 언제나 공감대를 가져야 하며, 대화의 핵심에 맞는 보편타당성의 합리적인 언어 선택도 중요하다. 판소리에서 장단

“요즘 국민들은 피곤하다. 경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상호 의견을 경청하면서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을 맞추듯 고수와 청중이 창자(唱者)의 흥을 돋우듯 ‘얼씨구’ 같은 추임새 효과로 상대의 의사 표현과 내용에 따라 공감해하는 마음과 자세가 대화 당사자간의 소통을 성공시킬 수 있다.

우리의 몸은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의 5가지 감각(오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다. 그 중에서 즉각 반응하는 것은 청각이다. 청각은 곧 경청이다.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남의 말을 들어 주는 것도 일종의 기술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 주는 사람일수록 배려와 소통이 빠르다. 그런 사람일수록 상대의 말을 경청하기를 즐긴다. 주변에서 덕망을 받는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경청을 우선시 한다.

징기스칸은 “경청이 나를 가르쳤다”고 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안아 주었으며 집중해서 들어주는 지도자였다. 경청은 자신의 시간을 상대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라 생각 했으며 진정한 위로의 힘이 되었다, 경청으로 얻은 지식이 많았으며, 경청은 곧 소통의 창구라 생각했다고 한다.

요즘 서로 다른 소속의 정당인들과 지상파 언론에 출연하는 토론자들의 대화를 접할 때 마다 대화의 장이 아닌 대립의 장이란 생각이 들곤 했다. 자신의 생각과 의사만 주장 하면서 대중을 무시하는 듯 한 대화로 토론을 이어갈 때 마다 채널을 돌리곤 했다. 자신이 주장하는 편파적인 언어가 대립과 갈등으로 번져 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혼돈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판단 기준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마다 등장하는 토론의 대화자들로부터 대화를 심도 있게 경청하며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 주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시간의 제약 없이 전달되는 인터넷 미디어 정보를 살펴볼 때 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 마다 상대방과 대립으로 갈등 해소책 마련에 급급하는 듯하다.

징기스칸은 경청의 자세로 상대방을 피드백 했다고 한다. 경청은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과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요즘 국민들은 피곤하다. 경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상호 의견을 경청하면서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배려와 양보의 미덕으로 다수를 위한 상생을 모색하는 것, 그 시작이 경청이다.

용서와 화합의 길

기고



김태중
5·18진상조사위
조사관

매국노 하면 누가 떠오르는가. ‘이완용’일 것이다. 어찌 우리 역사에 매국노가 이완용 혼자만 있으리오마는 유감스럽게도 그가 대표선수다.

과분한 탓인지 이완용의 후손이 “나의 할아버지는 매국노”라고 고백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나에게 “나의 할아버지는 학살자”라는 전우원 씨의 증언(?)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더 나아가 그는 우리 가족은 부정한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으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자백까지 하고 있다.

5·18은 이제 43주년을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 “덮고 가자”, 심지어는 “묻고 가자”고 말한다.

그러나 민낯이 보여야 덮을 것이 아닌가. 실체를 모르고 무작정 묻을 수는 없는 법이다. 그렇다.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다. 본질적인 ‘사실’(A fact)은 하나이지만 다양한 시선에 의해 ‘진실’(The truth)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가해자의 진실, 피해자의 진실, 광주의 진실, 서울의 진실 등이 밝혀져야 한다. 그날의 진실은 국민들의 눈과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역사의 진실 앞에 ‘피로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는 고백해야 한다. ‘사랑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고백은 어찌면 무모하고 따라서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장병으로 참여한 계엄군들은 대검 사용 등 강경진압, 조준사격, 확인사살, 가매장 등 진실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신군부 책임선에 있는 이가 고백한 적이 있는가. 그때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 너무 심하게 했다고... 호랑이 등에 올라탄 우리도 뛰어 내릴 수 없었다고...

광주시민도 고백해야 한다. 우리도 공

수부대한테 징하게 저항했어. 육교 위에서 벽돌을 던지고, 목숨 걸고 트럭으로 돌진도 했지..

화해는 또 절제를 필요로 한다. 진실을 고백하고 참회하면 이를 대승적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소한 불만을 끊임없이 추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변에서 ‘화해주’ 마시다가 술이 지나쳐 또 된통 싸우는 경우를 종종 본다. 단가 <사철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한 잔 더 먹소” 할 때, “고만 먹게”하는 절제의 지혜가 필요하다.

고백하고 참회할 때 용서와 화합의 길은 열린다. 아쉽게도 양심 고백자 전우원의 할아버지 전두환은 참회록 대신 왜곡으로 점철된 회고록을 썼다. 역사는 거울이다. 한국은 여지껏 참회와 청산의 역사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적폐가 쌓인다.

화합과 화해는 정략이나 술수가 아니다. 진실과 고백과 참회에 바탕을 둘 때 가능하다.

기고 고재경 배화여대 명예교수·작사가



안성훈이 안성훈 했다

2023년 3월 16일 한 종합편성채널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2-새로운 전설의 시작’ 결승전에서 가수 안성훈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발군의 가창력과 카리스마를 발휘한 안성훈이 자신의 노래 인생을 탈바꿈하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미스터트롯2진(眞) 등극은 안성훈이 향후 트로트 전설이 되기 위한 출발선이고 마중물인 셈이다.

개세지기(蓋世之氣)는 세상을 뒤덮을 만한 기세를 의미한다. 개세지기는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줄임말로 널리 사용된다. ‘힘은 산을 뽑을 정도이고 기세는 세상을 뒤덮을 만하다’의 뜻을 가진 역발산기개세의 대명사는 항우다. 중국 진나라 멸망 무렵에 전국국의 영웅호걸 중 가장 강력한 인물이 바로 초나라의 패왕 항우다. 동양의 영원한 고전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은 항우의 성장기를 재기과인(才氣過人)으로 기록했다고 한다. 재주와 능력이 사람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안성훈의 탁월한 음악적 재기(才氣)가 이번 경연 참가자들의 수준을 능가하여 결승전에서 마스터 최고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이는 대국민 온라인 응원 투표와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함으로써 안성훈의 진가를 입증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을 만한 뛰어난 가수가 바로 다름 아닌 안성훈이다. 노래면 노래, 인성이면 인성, 수려한 인물이면 인물, 주먹밥 만들지면 주먹밥 만들기 등 그 어느 것 하나 빠질 것도 없이 다재다기(多才多技)하다. 포르투갈의 ‘항해 왕자’ 엔히크가 중세 대항해 시대의 서막을 열었듯이 안성훈은 대한민국 대트롯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이끌어갈 새로운 전설의 탄생 그 자체다.

안성훈이 열창하는 노래를 들어보라. 그의 목소리는 한여름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길어 올린 물맛처럼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게 한다. 때로는 광활한 바다를 마주하듯 깊은 울림의 목소리요, 호소력 짙은 감동적인 설렘과 떨림의 목소리요, 사랑의 회한을 절절히 토해내는 매력

적인 끌림의 독보적 목소리를 지닌 안성훈이다. 즉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역대급 음색은 가히 천하일품이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안성훈은 항우의 재기과인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항우 안성훈의 기세와 위상은 산과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할 정도로 매우 위력적이고 감동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훈의 역발산기개세 할 정도의 가창력과 감성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특히 무명 신인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가수 활동을 포기한 적도 있었다. 때로는 붕어빵을 구워 팔고 일용직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와 함께 주먹밥 집을 운영해야 할 정도로 오갈 데 없었던(nowhere) 피치 못할 궁핍한 처지에 놓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동터 오는 새벽도 점점 가까운 법이다.

안성훈은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해 노래 실력을 연마하고 그동안 꾸준히 음원을 발표했다. 그 결과로서 이번 오디션에서 최종 왕좌를 차지한 이제 지금(now here) 안성훈은 앞으로 겸손하게 음악적 완성을 위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렇게 실천할 때 먼 훗날 비로소 전국민 안성맞춤형 트로트 가왕의 꿈이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원대한 꿈의 성취를 위해 열혈팬 입장에서 그리고 과거에 음악 작업을 함께 했던 작사자 입장에서 열렬히 응원한다.

이제부터 안성훈은 오직 노래만으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중흥무진 활동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무명 시절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국내 어디든지 팬들이 부르며 달려가야 한다. 늘 겸허한 자세로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소통해야 한다. 음악 시장에서 팬덤 없는 가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변함없이 트롯의 한과 흥 그리고 맛과 멋이 어우러진 노래로 항우처럼 개세지기 하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팬들의 뇌리 속에 시공을 넘나들며 영원히 기억되는 대한민국 대표 가수 안성훈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고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소더비에서 이곳 관계자가 10.57캐럿짜리 핑크 다이아몬드 반지를 진열하고 있다. ‘이터널 핑크’(Eternal Pink)라는 이름의 이 다이아몬드는 6월 8일 소더비 경매에 나와 3500만 달러(한화 약 457억 원)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AP/뉴시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